

#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길 열린다

## 부동산 가격·소유정보 등 연내 22종 개방...국민 편의 증진·창업활성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를 9월 30일 정부 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백본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데이터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9월 말까지 조기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 및

소유정보와 면적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 기반으로 용·복합한 지도 서비스다.

또한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및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공간정보포털(ksd.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와의 용·복합을 통해

상권정보, 시장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부동산 매물정보, 경매, 공매 정보 등을 지도위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개되는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서 부동산 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의 갱신이나 최신 정보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민·형사상 분쟁 및 중개사

고 감소와 부동산·토지정보 열람·발급 수수료 비용 절감 등 법적·경제적 효과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산업계의 창의적 활용과 정보 융합을 통한 신규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2종의 공간정보를 추가 개방하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활용가치가 높고 파급력 있는 핵심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Food for change'

## 인천부현동초, 바른 먹거리 교육

인천부현동초등학교(교장 조숙자)는 영양균형과 미각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고 바른 음식을 구별해 선택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3학년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 교육을 했다.

음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푸드 푸드 체인지 주관 아래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총 4차 시로 구성돼 실시했다. 1차시는 영양균형교육 시간으로 6대 영양소에 대해 공부한 후 오감을 통해 음식을 맛보는 체험을 했고, 2차시에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미각 교육을 실시하고 오감 만족 표지 만들기 체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즐겁게 체득하며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에는 식품

표시 확인으로 유통기한과 식품표시를 확인하며 영양성분을 알아보고, 4차시에는 미각 교육을 위한 과일 향 유무만을 만들고 과일 우유와 맛을 비교하며 식품 첨가물 실험을 통해 식품표시를 재미있고 친숙하게 공부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바른 먹거리 지킴이' 이수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을 추진하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한 한 3학년 교사는 "먹거리가 매우 중요한 데도 학교에서 실용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바른 먹거리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골라 먹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바른 먹거리 교육처럼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체험교육이 현장에 퍼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인천법기자 498@



## 출연료 미지급 사업주에 예술인복지법 첫 시정명령

### 예술인복지법 첫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발령하고 30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7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7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화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7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1년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7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7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화부는 불법계약 체결을 경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이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 조정, 소송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부는 2014년 첫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도 도입된 이후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했다.

# 학벌 뛰어넘는 취업성공신화

## 인천중앙여성, 금융권 취업률 뚫어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취업난,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아이들의 유망권, 그리고 절실한 도전을 위해 인천중앙여성의 선성남들과 학생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회계 특성화고인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예경)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 및 대졸 백수 334만 시대의 '취업난' 속에서 지난 5년간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등에 매년 25명 이상의 꾸준한 합격자를 배출하며 학벌을 뛰어넘는 고졸 취업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9월 현재 3학년 재학생의 경우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삼성화재, 한양증권, 흥국생명, 신한카드, 세미은행, 신한 등 대졸자들에게도 꿈의 기업이라 여겨지는 금융권에 18명이 합격했다.

이는 인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킨 것으로 금융권 취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인천중앙여성의 자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중앙여성은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지역인재 9급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2013년 전국 최대 5명 전원합격, 2014년 전국 최대 4명, 2015년 인천 최대 2명을 합격시켜 공무원 사관학교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번 2016년 지역인재 9급 공무원시험에서도 4명의 학생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교과는 "우수한 취업 실적으로 고졸 취업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자격증 과정과 1:1 맞춤형 취업 알선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준비 교육, 사랑과 섬김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취업부서 강화와 전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며,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지원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중·장년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중앙여성은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11월 4일 17시에 개최한다고 한다.

불황의 시기에 절적으로 수준 높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중앙여성의 모든 교육과정과 '왜? 인천중앙여성이 취업 명문?'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리 맛보는 우리 딸 급식체질의 기회도 주어진다 고 하니 관심 있는 중 3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확한 결과와 열매를 맺어 중앙여성이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법기자 498@

# 창의·융합 교육 통한 미래 인재 양성!

## 만수중, 삼성주니어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방과후교실 운영

만수중학교(교장 김숙혜)는 9월부터 삼성주니어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방과후 교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창의·융합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자유학기제 학기 중 진행되는 방과 후 교실 활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기초를 익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2주간 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과정 중 주 차례(중간/기말) 시행되는 게임과 미션은 전국의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학생들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더욱 신나고 흥미진진하게 소프트웨어를 접할 기회가 될 것이다. 즐거운 수업문화, 수

업방법,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사고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담당교사인 오정혜 교사에 따르면 방과 후 진행되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만수중학교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아이디어로 표현해 창작 작품을 만드는 과정(악기, 자율자동차, 드론 등을 익히며 교재와 교구의 지원으로 부담 없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적용·구현하면서 융합적 사고, 상상력과 흥미, 논리적 사고,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등 물론 고졸 활동을 통한 소통능력, 협업, 공유와 정보원리까지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인천법기자 498@

**청담동 도심형 품격주택**  
신원아침도시 마인 신규입주사업 현장안내

## 청담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9월 입주  
SAT 입주  
12월 입주  
12월 입주  
국가기표 상권

청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 청담역사상 재건축조합 ● 신원개발(주)

☎ 02) 540-1160



## 인천심곡초, 대한크리켓협회장배 전국유소년 크리켓대회 페어플레이상

인천심곡초등학교(교장 이명희)는 9월 25일 제4회 대한크리켓협회장배 전국유소년 크리켓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했다. 5학년 남학생 7명, 여학생 7명으로 구성된 크리켓팀은 한 달 동안 크리켓이라는 운동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에게 직접 배우고 익혔다.

이번 경기에서 여자팀은 4위를 했고, 남자팀은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8강

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러나 경기 후, 오늘 출전한 팀 중 가장 신사적인 경기를 진행한 한 팀에게 주어지는 메달보다 더 값진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경기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 접해보는 크리켓 경기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시간을 내 친구들과 연습하며 운동 재미와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법기자 498@

